

SK 이노베이션 096770

배터리 Recycling 사업에 한 걸음 전진

이차전지/석유화학

Analyst 노우호
02. 6454-4867
wooho.rho@meritz.co.kr

RA 이지호
02. 6454-4885
jiholee@meritz.co.kr

[Event] SK이노베이션-성일하이텍 JV 사업체결

전일 SK이노베이션과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 재활용 JV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 해당 법인을 통해 폐배터리 금속류(니켈, 코발트, 망간) Recycling 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시사점 1] SK이노베이션의 SK On과 연계한 배터리 순환경제 모델 구축

배터리 Recycling 사업 경쟁력은 (1) 폐배터리 확보 역량, (2) 금속 추출 회수 능력(회수율)이 해당. 배터리 Recycling 사업은 미국 IRA 정책 시행과 맞물리며 SK이노베이션의 중장기 Net Zero 사업목표 및 자회사 SK On의 제조원가 관점에서 중요. 22.10월 기준 SK On은 글로벌 Top5 배터리 출하량을 기록, 2025년 중장기 생산Capa는 240Gw 이상(22년 상반기 기준 수주잔고 220조 원)으로 EV배터리 최초 생산 및 폐배터리 확보 역량이 높은 점이 사업 경쟁력. 또한 폐배터리 회수율 관점에서 단독 사업 기준으로 금속류 회수율이 관건이나, 사업 파트너 성일하이텍의 금속 추출 기술력(니켈, 코발트, 망간)과 SK이노베이션의 수산화리튬 기술역량(수산화리튬을 직접 추출하는 기술 특허 출원 완료)의 사업 시너지를 기대. 이를 통한 SK이노베이션의 넷제로 목표에 기여(탄소배출량 최대 70% 감축) 및 SK On의 제조원가 절감(최대 5%) 가능

[시사점 2] SK이노베이션의 신규 성장 및 중장기 기업가치 상향 동력원

지난 21.7월 SK이노베이션의 1st Financial Story에서 언급된 배터리 Recycling 사업의 구체화 작업이 시작된 점. 기존 가이드는 2024년 사업개시 이후 2025년 연간 30Gw 배터리 Recycling 기준 EBITDA 3천억원. 당사의 중단기 메탈가격 강세 전망 및 IRA 정책 시행으로 배터리 Recycling 사업의 담보된 성장성은 동사의 기존 가이드스 가시성이 높을 점에 주목. 당사 추정 배터리 Recycling 시장규모는 22년 현재 27억달러→ 27년 111억달러로 21~27년 연평균 +32% 성장할 전망. SK이노베이션은 SK On과 연계한 배터리 순환경제(SK On의 배터리 생산→ SK이노베이션/성일하이텍 JV 배터리 Recycling) 구체화 증으로 중장기 기업가치 상향 요인이 높은 점에 주목

[결론] 2023년 SK On의 펀더멘털 정상화 여부가 단기 주가 핵심 변수이나, 중장기 SK이노베이션의 넷제로 사업목표에 기반한 성장동력원에 주목 필요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